

엄마

단편 드라마

목차

스태프

작품소개

캐릭터

줄거리

시놉시스

스태프

연출

서상락

조연출

김가람

촬영

김혜진

편집

이유진

음향

강정원

조명

이진환

작품소개

제작 형식: 드라마

주제 : 단 한 번의 무관심이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는다.

기획의도 : 주변의 많은 가정에서도 벌어질 만한 사연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부, 편모” 가정에서의 자식 사랑에 대한 고충과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려 한다.

캐릭터

구문숙 (엄마)

나이 : 56세

특징 : 자신의 몸이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유지한다.

두 아들에게 아프다는 것을 숨기며,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이 악화되는 것을 느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자신이 떠나고 남게 될 두 아들을 위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하며 마지막을 준비한다.



캐릭터



서진호 (형)

나이 : 22세

특징 : 엄마를 걱정하고 생각하는 속이 깊은 착한 아들이다.

진호는 집에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자신에게 생기고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만 철이 없는 동생을 보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한다.

캐릭터



서진수 (동생)

나이 : 18세

특징 : 매사 비딱하고 철이 없다.

가난한 집을 싫어하며 집안일에는 무관심하다.

오로지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며, 가정 형편에 맞지 않는 말만 한다.

나중에 무관심했던 자신의 말과 행동을 후회한다.

줄거리

진수네 가족은 아버지 없이 어머니 혼자 두 아들을 키웠다. 어머니는 두 아들이 행복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자신의 건강은 신경 쓰지 않고 일만 열심히 했다.

진수는 가난이 싫어 엄마에게 못할 말을 하고 진호는 진수 행동을 보고 화를 낸다.

어느 날 진호는 엄마의 병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는다. 엄마는 진호에게 자신의 병을 숨겨 달라고 부탁한다.

진호는 진수에게 엄마의 병을 얘기하려 하지만, 말을 하지 못하고 결국 진수는 아무 준비 없이 엄마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남긴 엄마의 편지를 본 진수와 진호는 후회한다.

시놉시스

“영원히 후회할지 모르는 당신에게”

오래된 집.

엄마와 형, 그리고 진수 세 모자가 살고 있다. 엄마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폐지 정리를 한다. 그런 엄마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진수는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고, 점점 더 엄마를 미워한다. 진호는 폐지 정리 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한다. 엄마는 매일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김밥을 사온다. 진수는 매번 같은 김밥을 먹는 것이 지겨워 짜증을 낸다. 진호는 동생 진수의 철없는 모습을 보며 화를 내고 그 말을 들은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인다. 엄마는 두 아들을 위해 통닭을 사오고, 세 모자는 행복한 저녁을 보낸다. 그 날 저녁, 진호는 속이 좋지 않아 소화제를 찾기 위해 안방 서랍을 열어 약을 찾던 중 못 보던 약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궁금함에 그 약 이름을 검색하게 된다. 그리고 엄마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된다.

시놉시스

아무것도 모르는 진수는 곧 다가올 자신의 생일과 받게 될 선물을 생각하며 엄마와 형에게 받고 싶었던 선물 얘기를 하고 진호는 진수에게 화를 내며 철 좀 들으라고 한다. 엄마는 약 봉투를 보는데 마지막 약이 있었고, 엄마는 달력을 보며 진수의 생일날 진수가 좋아할 모습을 생각 하며 웃는다. 생일 날 당일, 세 모자는 선물을 주고 받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철 없는 진수는 그저 즐겁기만 하다. 그 날 저녁 이후 엄마의 병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시간이 없음을 느끼며 진수에게 전화를 걸지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친구와 즐겁게 논다. 그렇게 진수 없이 진호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한다. 친구와 헤어지고 집에 도착한 진수는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자 죽어 있는 엄마의 모습과 엄마를 안은 채 울고있는 진호의 모습을 보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있다 이내 깨닫고 엄마를 흔들며 깨워보지만 미동이 없다. 그 날 진수가 마지막으로 본 엄마의 모습이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시작된다...